

2024 SPRING + SUMMER

국가보훈부 보훈교육연구원

# 어린이 Vol.07 나라와랑

나라사랑 히어로! | 외교활동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우사 김규식  
사(史)적인 여행 | 전쟁을 기억하며 떠나는 강원특별자치도 여행  
숨겨진 이야기 | 독립운동을 지킨 비밀 암호  
물건 속 기억 | 총과 같이 아닌 사진기로 전쟁에 참여하다



부록 | 나라사랑 스티커

## 어린이 나라사랑 구독 방법

어린이 나라사랑은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 무료로 구독할 수 있어요!  
웹진으로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래 QR코드를 통해 구독 신청해주세요!



종이잡지 QR



웹진 QR

### 종이잡지 신청 방법

종이잡지 QR을 통해 네이버 폼 접속  
▶ 내용 작성 ▶ 제출 클릭 ▶ 신청완료!

### 웹진 신청 방법

QR을 통해 홈페이지 접속 ▶ 정기구독 클릭  
▶ 내용 작성 ▶ 신청하기 클릭 ▶ 신청완료!

## 나라사랑 만나기

### 04 어린이 나라사랑 사용설명서

**06** 보훈 키워드  
나라사랑의 첫걸음

**08** **만화** 나라사랑 히어로!  
외교활동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우사 김규식

**12** 사(史)적인 여행  
전쟁을 기억하며 떠나는  
강원특별자치도 여행

**16** 기자단 취재일기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이  
소개하는 보훈 시설

**18** 나라사랑 Playlist  
노래와 뮤지컬로 만나는 나라사랑  
옥중에서 피어나는 희망  
'대한이 살았다'

**20** 음식으로 맛보는 보훈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  
밀가루로 만든 밀면



## 나라사랑 배우기

- 22 To. 나라사랑**  
박순홍 하사 6·25 진중일기
- 26 숨겨진 이야기**  
독립운동을 지킨 비밀 암호
- 28 만화 Let's Go! 나라사랑!**  
현충일을 소개해요!
- 32 어제와 오늘**  
옛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터, 마로니에 공원
- 34 물건 속 기억**  
총과 칼이 아닌 사진기로 전쟁에 참여하다  
종군기자, 데이비드 더글라스 던컨

## 나라사랑 꿈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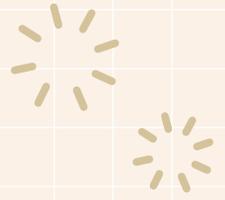
- 38 출동 기자단!**  
김재원 역사학자
- 40 만화 교실 속 민주주의**  
임원선거 속 민주주의
- 44 나라사랑뉴스**  
두근두근 설렘으로 가득한 첫 만남
- 48 나라사랑 인증하기**  
#이벤트 #인스타그램 인증샷
- 49 신나는 나라사랑!**

2024 SPRING + SUMMER

## 어린이 나라사랑 Vol.07

통권 7호 | 발행일 2024년 6월 5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 발행인 강정애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제작/기획 보훈교육연구원(031-250-8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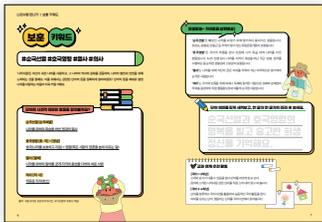
어린이 나라사랑 잡지는 학교와 가정에서 보훈의 역사를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과의 교과연계를 활용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 나라사랑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미래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 어린이 나라사랑 사용 설명서

**어린이 나라사랑**은 보훈과 역사를 다채롭게 전달하는 책이에요.  
어린이 나라사랑에 실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나라사랑 마음을 길러봐요!

**초등학교 교과 연계**로 과목 간 융합학습까지 가능해요. 학년별 교과 연계 추천 활동을 함께 실었어요. 교과 연계 추천 활동을 하면서 교과서 기반의 학습을 하도록 해요.



[국어] 6쪽, 22쪽



[사회] 32, 34쪽



[실과] 20쪽

### 만화로 만나는 나라사랑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숨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해요.  
만화를 통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 나라사랑 히어로! 8쪽

외교활동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우사 김규식

#### Let's Go! 나라사랑! 28쪽

현충일을 소개해요!

#### 교실 속 민주주의 40쪽

임원선거 속 민주주의





## 영상으로 보는 나라사랑



### 사(史)적인 여행 12쪽

강원특별자치도로 떠나는 보훈 여행을 영상으로 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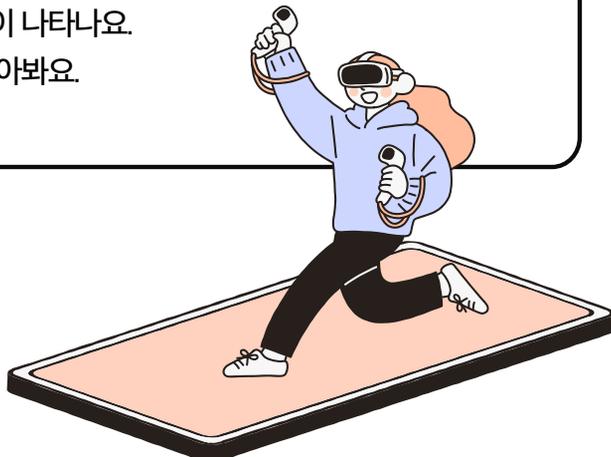
### 나라사랑 뉴스 44쪽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의 생생한 취재 현장을 만나요.



## 증강현실(AR) 주사위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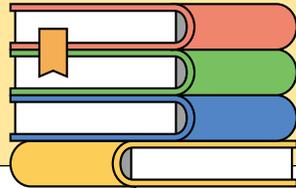
온·오프라인으로 어린이 나라사랑을 즐길 수 있어요.  
나라사랑 AR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어린이 나라사랑 종이잡지와 연동이 가능한 주사위 게임이 나타나요.  
게임을 통해 보훈 지식을 쌓아봐요.



# 보훈 키워드

## #순국선열 #호국영령 #열사 #의사

‘나라사랑’은 자신이 속한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며, 나라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해요.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질 거예요.



###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발음을 알아볼까요?

#### 순국선열 [순국씨널]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윗대의 열사

#### 호국영령 [호:국] + [영녕]

호국(나라를 보호하고 지킴) + 영령(죽은 사람의 영혼을 높여 이르는 말)

#### 열사 [열싸]

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하여 싸운 사람

#### 의사 [의:사]

의로운 지사(志士)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가보훈부 유튜브 채널

## 알쏭달쏭~ 차이점을 살펴봐요!

‘순국선열’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항거하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유관순, 윤봉길, 안중근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포함됩니다.

‘호국영령’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입니다.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다 세상을 떠난 국군 장병,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찰관, 소방관이 포함됩니다.

‘열사’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굳은 의지를 무력이 아닌 비무력으로 항거하여 순국한 사람입니다.

‘의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외세나 독재에 항거한 사람으로 성패와 관계없이 무력을 동반하여 직접 행동함으로써 의롭게 순국한 사람입니다.



단어 의미를 깊게 새겨보고, 한 글자 한 글자씩 따라 써 보세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억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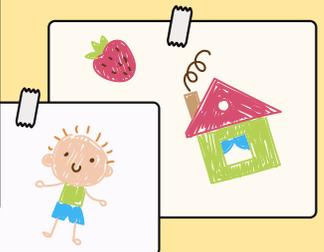
### ✔ 교과 연계 추천 활동

#### [국어 1~2학년]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단어를 바르게 읽고 쓴다.  
잡지에 소개된 나라사랑 관련 단어를 직접 소리 내어 읽고 써 보는다.

#### [국어 3~4학년]

단어를 분류하고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능동적인 국어 활동을 한다.  
의미를 모르는 단어, 헛갈리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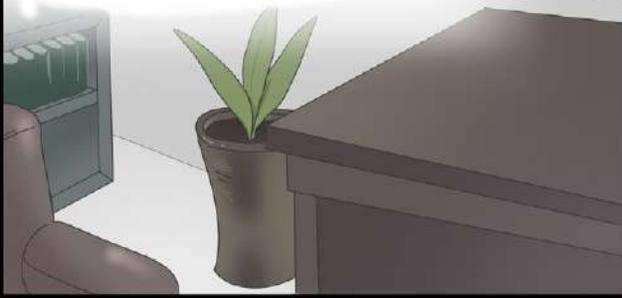


외교활동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우사 김규식



우사 김규식 선생은 1881년 1월 29일 태어났습니다.

선생의 아버지가 동래부\* 관리로 있던 시절, 일제의 불평등 무역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는 귀양을 가게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되어, 김규식 선생은 언더우드가 설립한 학당에 다니며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선생은 학당에서 근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1894년 한성 관립영어학교 제기생으로 입학하여 수석 졸업하는 등 사립학교와 근대학교를 모두 수학한 지식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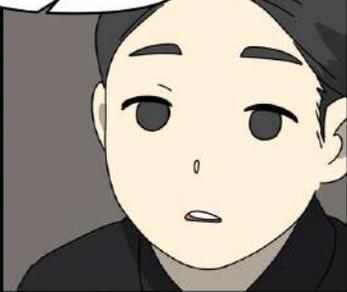


19살 무렵, 독립협회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김규식 선생은 독립신문에 입사해 서재필을 만났습니다.



김규식 군,

미국으로 유학을  
가보는게 어때?



서재필의 권유로 가게 된 미국 유학에서 로어노크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영문학 석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동래부: 조선 후기 이후 부산 동래지역을 관할하던 지역의 관청



1919년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파리강화회의에 가서  
세계 앞에서  
한국의 사정을  
최소 할변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파리로 떠난 김규식의 자필 이력서 중-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국 대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우리나라의 문제는 논의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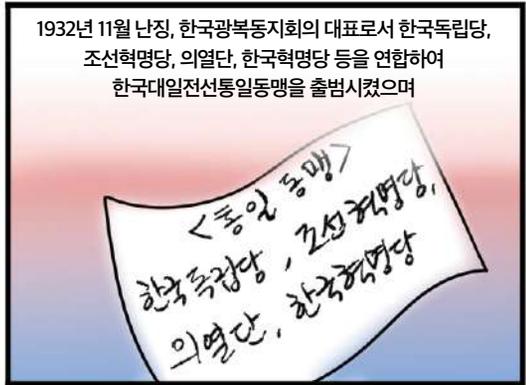
하지만 김규식 선생은 좌절하지 않고, 독립 외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외교활동**

- 프랑스 파리위원회 위원장
- 미국 구미위원회 위원장
- 러시아 극동피압박민족대회 한국대표 단장으로 참가
- 중국 한중호조사\* 창립 참여

임정 수립 직후에는 외무총장, 학무총장 역임하며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에 힘써나갔죠.



1932년 11월 난징, 한국광복동지회의 대표로서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의열단, 한국혁명당 등을 연합하여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출범시켰으며



1935년 7월 의열단, 조선혁명당 등 5당을 통합하여 민족혁명당을 창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을 오래 할 수는 없었습니다.



활동을 줄이는 대신 대학의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거쳐 부주석에 취임하여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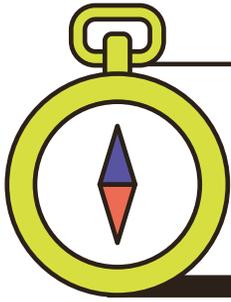


\*한중호조사: 한중합작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민간단체



외교활동을 통해  
세계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우사 김규식 선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 전쟁을 기억하며 떠나는 강원특별자치도 여행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휴전선이 맞닿아 있는 지역이에요.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많은 호국영웅이 나라를 위해 싸우고 목숨을 바친 현장이었어요. 오늘날 강원특별자치도에는 6·25 전쟁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고 호국영웅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강원특별자치도로 함께 떠나볼까요?



강원특별자치도로 떠나는  
보훈 여행,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곳

### DMZ 박물관

비무장지대(DMZ)는 전쟁 후 협약을 맺고 군사 활동을 금지한 지역이에요. 6·25 전쟁 이후 설정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기 2km의 지역을 DMZ로 정했죠. 현재 DMZ는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독특한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민간인 출입의 통제와 규제로 인해서 DMZ와 민통선 북방지역에 자연생태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그 결과 접경지역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불릴 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어요.

DMZ 박물관에 방문하면 5개의 상설전시를 확인할 수 있어요. DMZ의 탄생부터 현재 DMZ의 모습까지, DMZ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6·25 전쟁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DMZ의 의미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소장전시물을 눈에 담고 박물관의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요. 강원특별자치도를 여행하게 된다면 DMZ 박물관에 방문해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또, 현재 DMZ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로 369



DMZ 박물관



## 용감한 전투의 현장 백마고지 전적 기념관

백마고지 전적 기념관은 철원의 중요한 고지를 놓고 쟁탈전을 벌인 백마고지 전투에서 희생된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어요.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접전이 끝없이 이어졌는데요. 12차례씩이나 전투가 반복되며 고지의 주인이 24번이나 바뀐 끝에 승리하였습니다. 전시관은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생생한 현장을 재현하였어요. 또한 참전용사의 활약상과 유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야외의 백마고지 위령비를 보며 그들을 추모하고 우리의 역사를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져 보아요.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대머길 72



백마고지 전적 기념관



##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다 춘천지구 전적 기념관

6·25 전쟁 당시 춘천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 춘천지구 전적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춘천지구 전적 기념관은 춘천지구 전투의 기록을 담고 있어요.

춘천지구 전투는 북한군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어 북한군의 진출을 지연시켰다고 해요. 열심히 싸운 국군 덕분에 유엔군이 방어선을 만들 수 있었죠. 참전용사들의 나라를 향한 애국심을 춘천지구 전적 기념관에서 느껴보고 기억합시다. 전투의 상황을 실감 나게 전하는 전시물과 용감하게 맞서 싸운 호국영웅들의 이름을 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보아요.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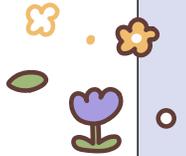
춘천지구 전적 기념관



## 나라사랑 컬러링!



생생한 강원특별자치도  
보훈 여행지가 등장했어요!  
다양한 색으로 색칠하며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키워보아요.



### Tip.

완성한 그림은 인스타그램에  
**#어린이나라사랑  
컬러링이벤트**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하면 이벤트  
참여 완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기자단 취재일기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이 소개하는 보훈 시설



## 해병대의 빛나는 혼과 정신을 기념하는 행주도강 전첩비!

김은재 용현초5

우리 동네에는 유명한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행주산성 입구에는 멋진 해병대 장갑차와 함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해병대 행주도강 전첩비입니다. 해병대 행주도강 전첩비는 1950년 9월 20일, 한미 연합 해병대가 한강을 건너 행주산성인 125고지를 다시 되찾음으로써 9월 28일 서울 수복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1958년 9월 28일에 쓰여진 글을 읽으며 마음이 웅장해짐을 느꼈습니다.



해병대 행주도강 전첩비는 두 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이 2개인 것은 한국과 미국 해병대의 연합작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삼각형에는 안정과 신념, 투지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

김서현 옥길산들초4

학교 재량휴업일을 이용하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현충문에 들어서면 입구 좌·우측에는 두 마리의 호랑이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두 마리의 호랑이가 지켜줄 것을 기원하는 뜻으로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현충탑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추앙하면서 동, 서, 남, 북 4방향을 수호한다는 의미를 지닌 십자형으로 된 국립서울현충원을 상징하는 탑입니다. 이 탑의 앞쪽에는 제단이 있고, 제단 앞에는 향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들으며 분향하고, 묵념도 하였습니다. 현충탑 내부에는 위패보안관이 있습니다. 위패보안관에는 6·25 전쟁 당시 전사자 중 시신을 찾지 못한 10만 4천 호국용사들의 위패와, 시신은 찾았으나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7천 무명용사 유해가 모여져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가족과 나들이 겸 우리나라를 위한 분들을 위해 묵념하러 찾기에 좋은 곳입니다.

## 안양, 평촌 자유공원 애국보훈광장에 다녀오다

### 최준희 만안초4

제가 사는 안양시에는 자유공원이 있는데요. 자유공원 내부에도 현충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애국보훈광장에 전시된 6·25 참전 공적비와 해병대 상륙장갑차는 우리의 전쟁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지역 출신 참전용사들의 이름이 적힌 공적비는 지역사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엿볼 수 있었어요. 평촌 자유공원에는 순국선열과 평화통일을 기념하는 비석들도 있는데요.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위해 일생을 바친 우리 지역의 항일애국지사인 이재천, 이재현 형제의 실물 크기 동상과 조형물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한항길 선생과 원태우 의사의 기념비는 우리의 역사적인 가치를 되새길 수 있어요. 독립을 위해 애썼던 항일운동의 희생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 수원 독립운동의 요람 삼일학교 & 아담스기념관

### 김소윤 송림초4

저는 수원 지역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던 삼일학교와 관련된 아담스기념관에 가보았습니다. 수원 삼일학교는 학생비밀결사조직인 구국민단 결성 및 활동과 연관된 곳입니다. 이들은 삼일학교에서 비밀화합을 하였으며 서울 동대문에서 입수한 독립신문과 창가집 등을 수원 일대에 배포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아담스기념관은 1923년 6월 25일에 미국 아담스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건립된 삼일학원 건물입니다. 우진각 지붕의 2층 벽돌 양옥인 아담스기념관은 현관이 건물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지하층은 거칠게 다듬은 돌로 쌓았고, 1층과 2층은 적벽돌로 벽체를 쌓았으며 층간에 목조 마루틀을 설치하여 예쁘게 바닥을 꾸몄다고 합니다. 지붕은 벽체 위에 목조트러스를 올리고 널판을 깔아 천연 슬레이트를 올린 구조입니다. 아담스 기념관은 2001년 1월 22일에 경기도 기념물 제175호로 지정받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아담스기념관이 평생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노래와 뮤지컬로 만나는 나라사랑 옥중에서 피어나는 희망 대한이 살았다



## 대한이 살았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데헤이 에헤이 데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 교과 연계 추천 활동

1. 친구들과 같이 <대한이 살았다>를 불러 봅시다.
2. 희망을 담은 노랫말을 직접 지어봅시다.
3. 역할을 맡아 뮤지컬을 연기해 봅시다.



## 마음과 마음을 통해 전해진 노랫말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실에서 하나의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이 노래는 7인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독립의 의지를 일깨우고, 힘든 상황에서 서로를 북돋아 주기 위한 노랫말이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 멜로디는 전해지지 않지만 후손들에 의해 가사가 남아 있어요. 그 노래가 바로 <대한이 살았다> 입니다.



##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1919년 3월 1일, 많은 독립운동가가 만세 운동을 벌이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서는 잔인한 형벌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작은 공간과 콩밥덩이가 전부였어요. 독립운동가들의 희망을 꺾고자 했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의 결연한 의지는 부러지지 않았어요. 7인의 여성은 대한의 독립을 위한 노래를 지어 함께 불렀어요. 차가운 옥에 갇혀서도 대한의 독립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다

8호실에서 지내던 7인의 독립운동가들은 옥중에서도 만세운동을 준비했어요. 뮤지컬 <대한이 살았다>\*는 실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이에요. 호수돈여학교 어윤희, 평범한 농촌 아낙\* 임명에, 시각 장애인 심명철 그리고 학생 유관순, 뮤지컬은 옥사에서도 독립의 끈을 놓지 않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은 오랜 역사로 남아 현재에도 울림을 주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며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되새겨 봅시다.



\*2019 뮤지컬 <대한이 살았다>

작사: 배새암

각색·연출: 김동순

음악: 김승진

주최/제작: (재)구로문화재단 | 극단 아리랑

후원: 구로구 | 서울특별시 | 서울문화재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쥬디와이엘씨디

\*전중이: 징역살이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름

\*산천: 산과 하천이란 뜻으로 자연을 이름

\*여옥사: 여자 죄수를 가두어 두는 건물

\*아낙: 부녀자를 이름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  
밀가루로 만든 밀면



 **교과 연계 추천 활동**

[과학 4학년 2학기 1단원 식물의 생활]

여러 가지 식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식물을 분류해 봅시다.

**[실과]**

식재료 생산과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식재료의 고유하고 다양한 맛을 경험하여 자신의 식사에 적용해 봅시다.



- \*별미: 특별히 좋은 맛 또는 그 맛을 지닌 음식
- \*원조: 물품이나 돈 따위로 도와줌
- \*실향민: 고향을 잃고 타지에서 지내는 사람
- \*공업화: 산업이 농업이나 광업에서 가공 산업으로 옮겨감
- \*기지: 재치 있게 대응하는 지혜

###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별미\*

여름 하면 생각나는 별미가 있어요. 바로 밀면입니다. 밀면은 밀국수냉면을 뜻하는 말이에요. 흔히 비빔밀면과 물밀면 두 종류가 있지요. 양념고추장으로 간을 하고 삶은 계란과 깨, 오이, 노른자 지단, 수육 등을 곱명으로 올려요. 겨울에는 따뜻한 육수를 내어 먹는 온밀면도 있어요. 밀면이 6·25 전쟁 때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전쟁 때 어떻게 음식이 만들어졌을까요?

### 굶주림을 채워준 밀면

우리가 쉽게 접하는 냉면은 메밀가루로 만든 평양식 냉면과 감자 전분으로 만든 함흥냉면이 있어요. 경상남도 진주시의 대표 음식도 냉면이지만 메밀로 만든 면을 사용한답니다. 부산 밀면은 메밀이나 감자가루가 아닌 밀가루를 사용해 만든 냉면이에요. 이북지역에서 부산으로 내려온 피란민들은 전쟁 속에서 메밀가루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 미국에서는 밀가루를 식량으로 대량 원조\*해 주었어요. 이때 밀가루에 전분을 넣어 쫄깃한 면을 만들었고, 이것이 밀면의 시작이에요. 밀면은 비슷한 음식인 냉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면을 끊어 먹기도 간편했어요. 실향민\*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고 배고픈 이들의 굶주림을 채워준 귀한 음식이지요. 전쟁이 끝난 이후 1960년대 부산은 빠르게 공업화\* 과정을 거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정착해 살기 시작하면서 서민들이 저렴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밀면이 사랑받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 전후 밀면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대중적인 음식이 되었어요.

### 역사는 고스란히 남아

우리가 먹는 맛있는 밀면 한 그릇에도 우리의 역사가 숨어져 있었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접하는 음식 중 꽤 많은 음식이 전쟁 중에 생겨났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지만 곳곳이 음식을 만든 사람들의 기지\*와 정성이 지금까지 남아 사랑받고 있어요.

## 박순홍 하사 6·25 진중일기

진중일기란 전쟁 중 기록한 일기를 말하는데요.  
6·25 전쟁에도 현장의 생생함을 담은 진중일기가 있습니다.  
바로 참전용사\* 박순홍 하사의 진중일기예요.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작성한 일기로 전쟁 당시 치열했던 전투 상황과  
전우\*를 향한 사랑,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어요.

사진 출처: 박정래 제공,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 우리의 평범한 영웅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침입으로 일어난 전쟁이에요.  
1953년 7월 27일 휴전되었지만, 전쟁이 있던 3년간 많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 전장에 뛰어들었어요. 박순홍 하사도 그중 한 사람이었어요.  
열아홉 살의 나이에 전투경찰로 전쟁에 참여하여 나라를 지켰습니다.  
심지어 그는 1950년 5월,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 결혼하였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굳은 마음으로 떠나야 했던 마음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참전용사’라고 하면 웅장하고 위엄있는 ‘영웅’의 모습을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여한 모든 이가 영웅이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 또한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용기가 모여 나라를 지키는 힘이  
생겼어요. 박순홍 하사의 진중일기는 이 평범한 병사가 전쟁 중 겪는  
일상을 담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어요. 그는 부대의 지휘관도 아니었고  
높은 직급의 군인도 아니었지만 애국심을 갖고 눈앞에 닥친 전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전용사: 전쟁에 참가한 용감한 군사

\*전우: 전장에서 승리를 위해 생활과 전투를 함께하는 동료

\*신병: 새로 입대한 병사



진중일기는 박순홍 하사가 참여한 1951년 강원도 수복 전투, 1953년 백두산부대의 중부전선 고지전 등에 대한 기록을 실고 있어요. 박순홍 하사는 경찰 신분으로 강원도 등에서 전투를 하다가 1952년 10월에 국군으로 소집되어 제주도 제1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받았어요. 당시 전쟁을 위해 모인 신병들은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을지 몰라 전장에 나가기 전 유서를 남겼다고 해요. 박순홍 하사의 글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1952년 11월 1일 토요일 晴天(맑음)

오전 중에 대기하고 있다가 오후 1시에 입대식을 거행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유서를 쓰고 손톱, 발톱, 머리를 잘라서 봉투에 넣었다. 밤이 되어 취침했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

부모님께 써 내려간 유서와 남긴 흔적에서 어린 나이에 전장에 나가야만 했던 안타까운 현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밤이 와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밀려오는 두려움을 감당해야만 했던 그 시절 병사들의 어려움이 일기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나라의 국민으로서 기억해야 할 6·25 전쟁이 누군가에게는 개인적인 삶의 중대한 사건이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긴장하며 보내던 매일,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야 하던 시간, 승리하기 위해 싸운 치열한 현장들. 진중일기에서 다른 이야기들은 전쟁 중 한 사람의 손으로 쓰인 것이지만 자연스레 다른 병사들의 삶과도 연결됩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용감하게 전장을 누비던 박순홍 하사의 모습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전해봅시다. 빗발치는 총탄 사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박순홍 하사는 휴전 후 최전방 부대에서 육군 하사로 복무를 마쳤습니다.





1951년 5월 27일 월요일 雨天(비)

용감하게 달리는 우리 부대는 단기간 내에 백두산 상봉에 태극기를 날릴 것 같았다. 어느덧 38선을 넘었다. 이와 같이 전진하는 것을 알면 고향에 계신 부모형제가 기뻐하겠지.

1957년 인제경찰서로 복귀하고 1962년에 이르러 고향인 황성으로 돌아가 정년퇴직까지 경찰의 임무를 다했어요. 진중일기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부인 임채숙 씨가 유품을 정리하다 아들에게 전해주며 알려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약 70년 전 일기를 정리하여 책으로 낸 것이죠. 한 사람의 일기가 우리 역사를 깊이 알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공

### 기억하고 공감하기

2023년 6·25 전쟁 제73주년 행사에서 아들인 박정래 시인이 박순홍 하사의 진중일기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의 헌신에 감사하는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며 6·25 전쟁에 참전한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은 나라를 지킨 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현재 6·25 진중일기의 원본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증되어 역사관에서 관람할 수 있어요. 진중일기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목숨을 잃은 전우들을 보며 견뎌야 했던 슬픔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칠 것을 각오하는 군센 다짐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참전용사의 삶을 조명한 진중일기를 읽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보아요. 역사를 잊지 않고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닐까요?



## 6.25 전쟁 참전용사가 되어 일기를 작성해 봅시다

박순홍 하사가 전쟁 중 고향을 그리워하며 쓴 일기예요.

참전용사들에게 공감하는 마음으로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며 일기를 써 보아요.

1951년 7월 3일 화요일 晴天(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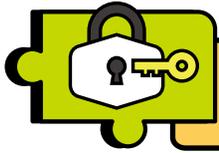
어느 때인지 부모님을 만나 반가운 눈물을 흘리다가 깨어보니 꿈이로구나.  
깨버린 후에 잠이 들지 아니하고 고향 생각만 하면서 아~ 문득 생각이 났다. 영주에서 소식  
듣기를 아버님이 편찮으시다더니 아직도 꽤차치 못 하신가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럭  
저럭 날이 새서 뒤쪽 발을 나가보니 저 멀리 보이는 고향의 푸른 하늘만이 보였다. 오늘은  
아무 생각도 없이 속으로 눈물만 겨웠다.

### 교과 연계 추천활동

[국어 4학년 2학기 2단원]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요. 목적과 주제를 생각하여 독자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작성해 봅시다.





## 독립운동을 지킨 비밀 암호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암호\*를 사용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독립운동에서 비밀스럽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에 이 암호는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독립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비밀 암호를 알아볼까요?

### '암호부' 알아보기



음	모	음	바	침	수	자	구	적	영	자
1	30	40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2	31	41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3	32	42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4	33	43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5	34	44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6	35	45	0006	0006	0006	0006	0006	0006	0006	0006
7	36	46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8	37	47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9	38	48	0009	0009	0009	0009	0009	0009	0009	0009
0	39	49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 암호부(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W-K 암호(출처: 국가보훈부)

Q

#### '암호부'가 무엇인가요?

1919년 일본 경찰이 중국 하얼빈역에서 조선인의 소지품을 수색\*하다 발견한 암호를 해석하는 방법이 담긴 문서예요.

Q

#### '암호부'의 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숫자로, 숫자와 동서남북은 특수기호 등을 대입\*해서 만들어졌어요. 규칙을 모르면 암호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해요.

Q

#### 왜 암호를 사용했나요?

독립운동은 일본의 감시를 피해야 했어요. 독립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비밀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때 암호는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경찰에게 붙잡혔을 때 비밀문서가 발각\*되어도 내용을 알 수 없게 하려고 사용되었어요.

Q

#### 다른 암호도 있나요?

한글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암호들이 많았는데요. 그중 하나는 김우전 선생이 만든 'W-K(우전킴)' 암호예요. 자음과 모음을 두 자리 숫자로 나타냈고 받침은 네 자리 숫자로 나타냈다고 해요. 이외에도 벽을 두드려 암호를 전달하는 '타벽통보법'도 쓰였어요.



현충일을 소개해요!

# 현충일,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1953년 7월,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나서야 휴전이 선언되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현충일은 1956년 4월 19일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다.



6월에는 현충일뿐만 아니라



6.25 전쟁 기념일도 있고 또 6월 29일 제2연평해전과 같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 많이 있지.



2002년 6월 29일, 우리나라 서해 연평도 인군을 북한 경비정이 기습 공격했고, 우리나라 해군은 30여 분간의 교전 끝에 북한군을 물리쳤어.



하지만 우리나라 해군들이 전사하고 부상을 입었다. 목숨을 걸고 우리 바다를 지켜내신 거야.





그렇구나!  
오늘부터는 꼭 기억해야겠어요.



그런데 대한이  
넌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구나?!

맞아!

내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미리 공부를 해봤어! 우리 역사는  
잘 알아둬야 하잖아~



그러면 현충일에  
우리 대한이와 빌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

음~ 현충일을 그냥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태극기를 달아요~



그렇지!!

그런데 태극기를  
제양하는 방법은  
알고 있니?



그럼요! 깃봉 가장 위에 매달아서  
펼럭이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란다.

현충일에는 슬픔을 애도하는  
표시로 조기 제양을 해야 한단다.



조기 제양이 뭐예요?



조기는 돌아가신 분을 위로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깃발이야.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달면 된단다.



알 것 같아요!  
대한아, 우리 내일 꼭  
태극기를 제양하자!

그래~



## 빌리가 알려주는 현충일의 의미

### What is Hyeonchung-il (Memorial Day)?

On this day, we honor and show appreciation to the war veterans who sacrificed their lives for our country. How should we observe this day? Firstly, we fly our national flag as a sign of shared mourning for the sacrifices made by war veterans. When flying the flag on this day, we lower it as much as its vertical length. Secondly, when the siren rings for one minute at 10 o'clock in the morning, we observe a moment of silence to remember the noble devotion our war veterans showed to our country.

#### 교과 연계 추천활동

[영어 6학년 날짜를 묻고 답하는 표현 읽고 쓰기]

When is Hyeonchung-il (Memorial Day)?

It's \_\_\_\_\_

observe 기념하다    sacrifice 희생하다    vertical 세로의  
 devotion 헌신    noble 숭고한    appreciation 감사



# 옛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터, 마로니에 공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에 존재해요. 많은 역사적 공간들이 지금은 그 모습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아요.



마로니에는 나도밤나무과에 속하며 가로수로 많이 사용됩니다. 노래에도 많이 등장하며 낭만을 뜻하는 나무이기도 해요. 마로니에 나무는 시민에게는 그늘이 되어주고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기도 해요. 서울에도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마로니에 공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마로니에 공원에도 숨겨진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1960년 4월 19일,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많은 학생과 시민들은 자유와 정의를 위해

거리로 나섰죠. 하지만 정부와의 충돌에 대학생을 비롯해 많은 학생들이 희생 당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각 대학 교수들이 4월 25일 시국 수습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3·15 부정선거를 비판하고, 학원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 것과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었어요.

또한, 상황이 심각하니 학생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학업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당부도 있었죠. 4·19 혁명으로 인한 학생들의 죽음에 각 대학 교수단이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시작한 곳이 바로 현재 서울 종로의 마로니에 공원이예요. 지금의 마로니에 공원은 서울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이지만, 과거에는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이 있었던 자리예요. 모습은 바뀌었지만 역사는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어요. 피와 땀으로 지켜주신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로니에 공원의 모습과 그날의 학생들을 그려보아요.

**\*열사:**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싸운 사람  
**\*결의:** 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음  
**\*시국선언:** 현재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담은 선언

**☑ 교과 연계 추천 활동**

**사회** 마로니에 공원을 찾아보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이해해 봅시다.

**미술** 관찰과 상상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려 표현 주제를 구체화해 봅시다.



# 나라사랑 그림 그리기

옛 서울대학교 교수회관과 지금의 마로니에 공원을 떠올려 보아요  
권리와 자유를 찾기 위해 나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 총과 같이 아닌 사진기로 전쟁에 참여하다 총군기자, 데이비드 더글라스 던컨



던컨이 찍은 사진



던컨이 찍은 사진

“

내 목표는 마치 보병대원, 해병대원, 파일럿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것처럼 가능한 한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 셔터를 누르는 것이었다. 독자들에게 교전\* 중인 이들이 겪는 불안, 고통, 긴장, 이완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했다.

- 데이비드 더글라스 던컨 -

”

전쟁은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기도 하지요. 그 비극의 현장에서 총이나 칼 같은 무기가 아닌 카메라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탄과 화염 속에서 전쟁의 모습을 담아낸 데이비드 더글라스 던컨이 그중 한 명입니다.

6·25 전쟁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생과 사가 오가는 전투 현장을 담기 위해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어야 했던 던컨의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피사체: 사진을 찍는 대상이 되는 물체

\*교전: 서로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함

\*발발: 전쟁이나 큰 사건 따위가 갑자기 일어남

\*특파원: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파견된 사람

\*피란민: 재난이나 전쟁 등을 피해 이동하는 사람

\*총군기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쟁지역을 취재를 하여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하는 기자 등

\*사명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려는 기개나 책임감

## 역사의 기록자

던컨은 제2차 세계대전이 치러지는 동안 미군 해병대원으로 3년간 복무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시사·사진 잡지인 라이프지의 사진기자가 되어 활동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 후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던컨은 한국에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6월 28일 수원에 도착했어요. 한국의 모습은 더없이 참혹했고, 끝없는 피란민\*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던컨이 마주친 피란민들 중에는 손수레를 끄는 아들과 수레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 늙은 부부도 있었어요. 던컨은 자신의 덩치가 마주한 피란민보다 훨씬

큰데도 작은 카메라만 들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사진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지요. 그렇게 던컨이 담은 것은 전쟁 속 영웅의 멋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병사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식사하는 모습, 무너진 도시, 전쟁 피해자들을 옮기는 행렬, 탄약이 떨어져 전투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되자 눈물을 흘리는 병사의 모습 등, 던컨은 전쟁이 만든 고통과 아픔을 꾸며내지 않고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전쟁이 주는 절망과 좌절감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요.



## 사진기를 통과해 역사로 남기까지

종군기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쟁지역에서 취재를 하여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하는 일을 합니다.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을 사실적으로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군기자들은 전쟁터 가장 가까이에 머물러요. 목숨을 걸고 현장으로 달려나가지요. 그만큼 사명감\*이 요구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 ☑ 교과 연계 추천 활동

[사회 6학년 1학기 3단원]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을 이해하고, 영향을 탐구해 봅시다.

전쟁과 관련된 물건들을 주변에서 찾아보고, 이를 통해 과거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종군기자들은 총과 같이 아닌 사진기로 자신만의 전쟁을 치러왔어요. 그들이 찍은 사진은 전 세계로 퍼져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지금 우리가 전쟁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현장을 지키고자 했던 종군기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출동! 기자단

# 김재원 역사학자를 만나다



5월 18일 토요일, 뜻깊은 날에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이 한 스튜디오에서 모였어요. 바로 김재원 역사학자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9명의 기자들은 김재원 역사학자님과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어요.

역사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역사에 대한 즐거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김재원 역사학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굉장한 가치있는 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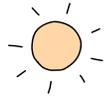


더 많은 인터뷰 내용은 웹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 역사학자와 기자단의 만남,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일월초6  
성지유 기자

### Q 역사학자가 되고 싶은데,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되나요?

**A**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과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달라요. 연구는 조금 더 복잡해요. 과거의 사실이 어땠는지 책을 통해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실들과 본인의 생각을 덧입혀서 새롭게 역사를 쓰는 사람이 역사학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관련 학과로 진학하는 게 좋겠죠. 전문적인 연구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대학원에 들어가면 기자님이 역사학자가 될 수 있는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천히 기자님이 역사학자가 되어서 나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학자가 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대구교대부초5  
이종민 기자

### Q 역사 강의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문을 가지는 힘을 길러주죠.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말이죠. 강의를 하면 계속 되짚고, 항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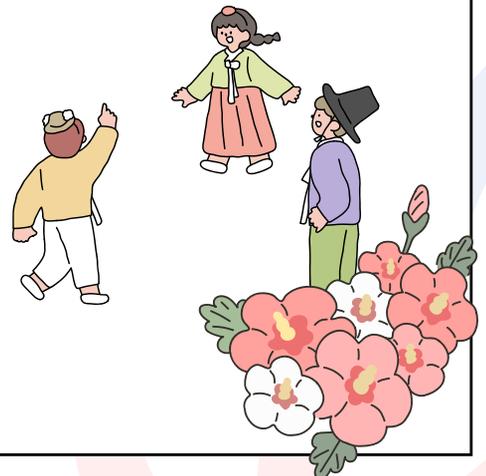
질문을 해요. 예를 들자면, 세종대왕은 한글을 왜 만들었지?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어? 라는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다시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용현초5  
김은재 기자

### Q 어린이들이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 같아요. 친구와의 첫 만남에는 자기소개를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알아야 나를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먼저 이해하는 게 역사 공부의 시작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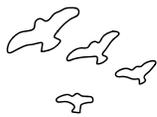




성남은행초5  
정아인 기자

**Q 초등학생에게 추천하는 역사 유적지가 있나요?**

**A**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어요. 바로 역사는 질문이에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해요. 학교에서 선생님께, 집에서는 부모님께 질문해요.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역사에는 정답이란 것은 없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사실)만 존재할 뿐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개개인마다 달라요. 앞선 답변과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왜 서울이라고 불려졌을까? 남한산성은 언제부터 산성이었을까? 동네 주변을 둘러보고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곳이 바로 역사 유적지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곧 역사가 될 수도 있겠죠?



송화초4  
이은성 기자

**Q 수많은 역사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5월의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5월은 정말 많은 사건이 일어난 달이에요. 그중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억압되어 있었던 시절이었죠. 당시 대통령이

부하에게 죽임을 당한 후, 새로운 군인 집단 즉 신군부 세력이 등장했어요. 국민들은 좀 더 자유로운 나라, 좀 더 민주적인 나라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고, 전국에선 시위가 벌어졌어요. 이에 신군부는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국민들을 탄압했어요. 그러자 다음 날인 5월 18일 광주에서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신군부는 이를 폭력으로 제압해 수많은 광주 시민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죠. 5월 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점령으로 5·18 민주화 운동은 결국 끝나게 되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이 주체가 된 운동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여의도초6  
박태성 기자



**Q 가장 존경하는 역사 속 위인은 누구인가요?**

**A**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제일 존경해요. 여러분들이 위인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역사는 특별한 누군가를 칭송하고 특별한 누군가를 위인으로 추대하고 그 사람을 막 떠받들고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학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도 역사 속 훌륭한 위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학은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는 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위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를 좀 더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주단재초4  
하윤아 기자

**Q 일제강점기 시절에 계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셨는지 궁금합니다.**

**A**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는 약 1만 7천 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남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독립을 외치고, 싸우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했어요. 담벼락에 ‘곧 독립이 된다’, ‘대한민국만세’를 낙서해서 누군가는 잡혀가기도 했어요. 그때는 쓰는 것조차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목숨을 바칠 정도로 애쓰지는 못했겠지만, 침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낙서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웃음)



서울혜화초6  
심지현 기자

**Q 어린이들이 호국 영웅들에게 꼭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힘들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보다 쉽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을 기억한다기 보다는 이 사람이 왜 나라를 위해 애썼고,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를 생각해보고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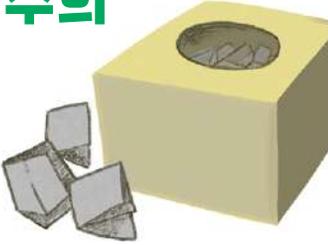
청주단재초4  
하연아 기자

**Q 역사 공부를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인가요?**

**A** 제가 강의를 하는 곳은 대학이기 때문에 어린이 기자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기는 해요. 그런데 요즘은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이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어요. 책이나 유튜브 등 다양한 곳에서 말이죠. 어느 특정한 공간이나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역사 이야기를 전달해 주려고 해요. 방송 프로그램이나 국가보훈부 유튜브를 통해 역사에 대해 알리고자 해요. 역사는 정답을 선택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역사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정답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목이에요. ‘과거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나를 찾아가고 그 가운데서 과거랑 대화하며 특정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재미를 알아가는 게 바로 역사입니다.



# 임원선거 속 민주주의









제4기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 발대식 현장을 만나볼까요?

# 두근두근 설렘으로 가득한 첫 만남



## 생생한 발대식 현장으로 떠나요!



### 송우현 천마초5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기자단의 모집 소식을 듣고 작년에 잡지에서 본 기자단 친구들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기자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기자단에 신청했습니다. 발대식 날이 되기 전에는 실감 나지 않았지만, 보훈교육 연구원에 도착해 기자증과 기념품을 받고 사진도 찍으며 기자단이 되었다는 것이 실감 났습니다.



발대식 시작 전에 각티슈함을 만드는 목공예 활동을 한 후 발대식에 참여하기 위해 강당에 갔습니다. 기자단 자리가 마련되어 점점 기대되고 설렘이었습니다. 발대식에서 보훈 영상과 설명을 듣고 알지 못했던 역사와 인물에 관심이 생겼고, 실감 영상과 디지로그 체험을 하면서 많은분의 희생이 우리가 편히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도전 골든벨을 위해 부모님과 공부를 했습니다. 비록 '사적지'라는 답이 기억나지 않아서 중간에 탈락해 아쉬웠지만 치어리딩도 보고 퀴즈도 풀며 기자단 임명장을 받아 즐거웠습니다. 발대식에서 알게 된 것 중 스코필드 박사님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님은 3·1 운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제암리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인물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응원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남의 나라를 위해 힘썼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스를 볼 때 기자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신기하기만 했는데 이번엔 기자가 되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직접 기사를 쓰고 있으니 기분이 묘하지만 재미도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로서 독립, 호국, 민주주의 가치와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국민이 잘 몰랐던 보훈 역사를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줄 것입니다.

## 나는 멋지고 발 빠른 기자가 되고 싶어요



### 박태성 여의도초6

2024년 4월 20일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하기 위해 보훈교육연구원에 갔습니다. 부모님, 이모, 사촌 동생과 함께 갔습니다. 처음 가는 발대식이라서 기대가 되었습니



다. 부모님이 기자단 신청을 해주셔서 고마웠고, 기자단에 합격하여 기분이 더욱 좋았습니다. 보훈교육연구원은 수원에 있습니다. 목동에서 수원까지 예상 시간은 1시간 30분이었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차에서 1시간 동안 자다 보니 어느새 도착해 있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 모자와 기자증을 받았습니다. 모자를 쓰고 기자증을 목에 걸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발대식 전 활동으로 각티슈함 만들기를 했습니다. 무대에 들어가기 전 포부 플랜카드에 '나는 멋지고 발 빠른 기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작성했습니다.

발대식이 진행되는 강당에 가보니 보훈에 관한 동영상도 나오고 있었고 우리 역사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석호필에 대해 배웠습니다. 석호필은 3·1 운동을 돕고 제암리 학살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던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6·25 사적지와 민주주의에 대해 배웠습니다. 보훈교육연구원에는 디지털 보훈학습 콘텐츠 체험관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훈에 대해 배우는 곳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보훈학습 콘텐츠 체험관에서의 교육은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디지털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색칠한 위인들이 벽에 나오는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발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축하 무대로 치어리딩 공연을 보았습니다. 국민의례, 애국가, 묵념 순서 후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기자단 대표로 선서를 하게 되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에 대한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훈 문제로 구성된 골든벨에선 긴장한 탓에 전부 맞이지 못해 아쉬웠지만, 알찬 발대식에 참여해 재미있었습니다.

## 성실한 기자가 되어 나라사랑을 알리겠습니다

### 임연서 동곡초6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고 평상시 엄마와 역사와 관련 있는 곳으로 소풍을 자주 다녀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3기에 참여했던 친한 언니와 엄마의 권유로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 4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발대식 날 아침 일찍 부모님과 함께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으로서 다짐



### 이은성 송화초4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제4기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4학년이 되면서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고 더 궁금한 것들이 생겼는데 부모님께서 나라사랑 어린이 기자단이 있다는 것을 알

비가 와서 구경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큰 규모의 건물에 감탄하며 정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모자와 기자증을 주셨고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어 주셨습니다. 발대식 시작 전 보훈에 관한 영상을 보며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훈교육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아보고 짝막한 보훈 퀴즈도 풀면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디지털 실감 영상실에서 본 영상도 감명 깊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신나는 어린이 치어리딩 공연을 보았고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임명장을 받을 때 '내가 정식으로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가 되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 뿌듯하였습니다. 또 선서 기자로 뽑혀 선서를 했는데, 조금 떨렸지만 자랑스럽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사회를 보시던 멋진 목소리의 아나운서님이 기타와 노래로 재미있게 게임도 해주시며 옆 친구와 친해지도록 유도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오늘 발대식에선 보훈이란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시고 몸을 바친 분들에게 보답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실한 기자가 되어 나라를 지키도록 노력했던 우리 조상님들을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보시고 지원하여 기자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으로 뽑힌 친구들과 함께 모여 발대식에 참여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보훈교육연구원에서 발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치어리딩 팀이 공연도 하고 앞으로의 기자단 일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자단을 진행하는 이유는 어린이들이 나라, 역사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임명장과 모자, 기자증, 취재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수첩을 받았는데 받고 나니 정말 기자단으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나는 기사와 취재를 잘하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라는 포부를 적었는데,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한 기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기자단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가 모두 역사를 더 바르게 잘 알고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두근두근! 행복했던 발대식에서의 하루



### 이재은 수명초6

4월 20일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제4기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영웅에 대한 감사함을 널리 알리며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어 감사한 마음 가득 안고 발대식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과 사진이 있는 기자증을 목에 걸었을 때 이제 정말로 기자가 된 것이 실감이 나고, 앞으로 기자단 활동을 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었습니다.

다 함께 디지털 보훈학습 콘텐츠 체험관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제일 먼저 실감형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독립운동의 현장, 6·25 전쟁 영웅에 대한 이야기, 민주화운동에 대한 두 친구의 슬픈 이야기 등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니 더욱더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 디지털 액자로 우리나라와 해외의 보훈영웅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모르던 영웅들도 많이 계시어서 조금은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책으

로만 보던 위인들 외에도 얼마나 많은 숨은 영웅들이 계실지 생각하니, 앞으로 역사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에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또래 친구들의 치어리딩 공연을 보았는데 신나는 음악에 맞춰 흥겨운 동작을 선보이니 발대식 현장의 열기가 뜨거워졌습니다. 보는 동안 저는 신이 나서 옆에 있는 다른 기자와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따라 부르며 공연을 즐겼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이해영 보훈교육원장님께서 임명장을 수여해 주셨는데, 제 이름이 호명될 때 가슴이 쿵쿵 쿵쿵 뛰었습니다. 임명장을 받고, 자리로 돌아와서 기자 선서를 하면서 진짜 기자로 인정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번 발대식에서 플래카드에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서 들어 올렸습니다.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보훈 정신을 널리 알리며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기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 나라사랑 인증하기

## 현충시설이란?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한 시설이에요. 우리나라 곳곳에는 많은 현충시설이 있습니다. 현충시설에 방문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요. 현충시설에 방문한 친구들의 사진과 소감을 살펴볼까요?



### '인증하기' 코너는...

<어린이 나라사랑>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져요. 현충시설에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간단한 소감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태그(#어린이나라사랑 #어린이나라사랑이벤트)도 꼭 달아주세요!



# 나라사랑 6호 구독 후기



**조\*슬**

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우리 역사를 이번 호를 통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 역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손\*은**

우리의 평화가 송고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평화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우**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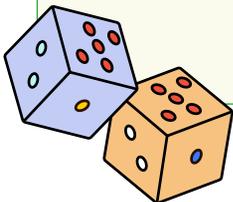
한용운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드러났어요. 나라를 더 사랑해야겠어요.



## 부록 활용 방법!

### 나라사랑 주사위 게임!

- ① <어린이 나라사랑>을 읽고 뒤표지 주사위 게임판을 준비해요.
- ② 뒤표지 QR 코드를 통해 나라사랑 AR 앱을 다운주세요.
- ③ 나라사랑AR에 주사위 게임판을 비추면 나라사랑 주사위 게임을 시작할 수 있어요!!



## 이벤트 신청 방법!



### 사(史)적인 여행

컬러링을 개성있게 색칠하고 완성한 컬러링을 인스타그램에 #어린이나라사랑 #컬러링이벤트 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나라사랑 구독 후기

<어린이 나라사랑>을 읽고 구독 후기를 어린이 나라사랑 웹진 '구독 후기'를 클릭해 사진과 함께 후기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50분께 기프티콘을 드려요. 가장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3분은 다음 호 구독 후기 코너에 소개되는 기쁨을 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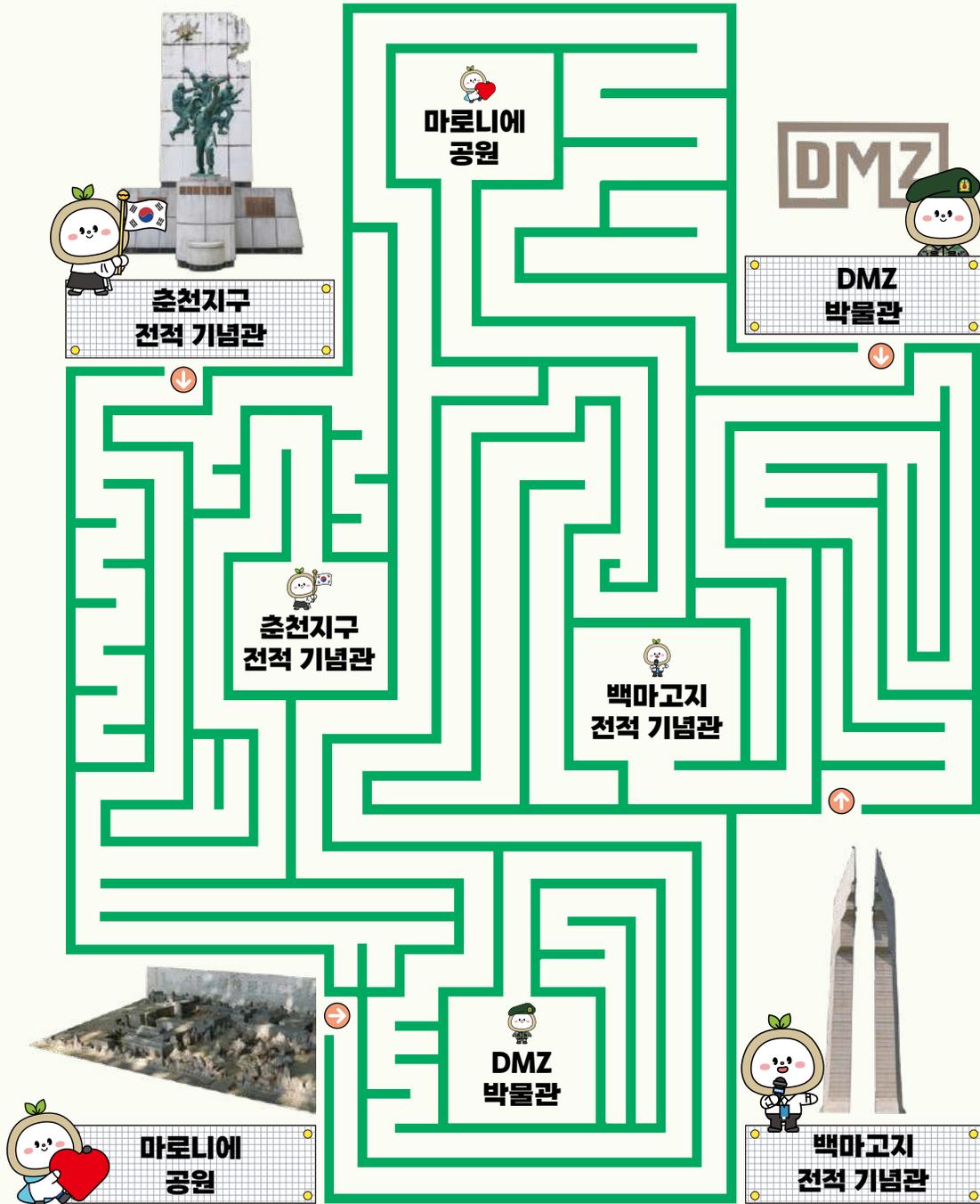
### 나라사랑 인증하기!

우리나라 보훈 시설에 방문한 후 인증샷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어린이나라사랑 #인증하기이벤트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하면 이벤트 참여 완료! 추첨을 통해 5분께 기프티콘과 다음 호 나라사랑 인증하기! 코너에 소개됩니다!



# 나라사랑 미로 찾기

‘보보’와 함께 호국보훈 정신이 담긴 장소를 따라가봐요!  
<어린이 나라사랑>을 열심히 읽어봤다면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마로니에 공원**

**DMZ 박물관**

**춘천지구 전적 기념관**

**춘천지구 전적 기념관**

**백마고지 전적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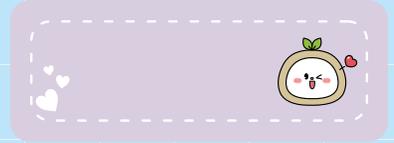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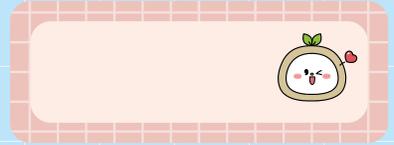
**DMZ 박물관**

**백마고지 전적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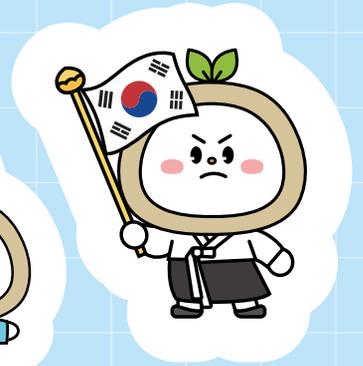
**마로니에 공원**

**백마고지 전적 기념관**

나라사랑숲 속 유쾌한 요정 보보와 함께  
**나라사랑씨앗 품기**



BOH-BOH



# 나라사랑 국가보훈 퀴즈



## 호국의 영웅

- 01 6·25 전쟁 시 오금손은 백골부대 간호장교로 자진 입대하여 포항 ○○○○ 전투에서 병원을 기습한 북한군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 02 월튼 워커(Walton Harris Walker)는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월튼 워커는 낙동강 방어선에서 군인들에게 “죽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YouTube

- 05 을사조약이 아닌 을사늑약으로 불리는 이유는 일제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국가보훈부

## 호국의 역사

- 03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 2차례에 걸쳐 북방한계선(NLL) 남쪽의 연평도 인근에서 대한민국 해군 함정과 북한 경비정 간에 발생한 해상 전투는 ○○○○입니다.
- 04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1950년 12월 15일(출항 기준)부터 23일까지 흥남항구를 통해 해상 철수한 작전은 ○○○○○○입니다.



나라사랑 배움터

## YouTube

- 06 김영관 애국지사는 일본 군대에서 탈출 후 죽을 고비를 넘기며 ○여 일 만에 광복군에 합류했습니다.



TV나라사랑



### 웹진 바로가기

<어린이 나라사랑>을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퀴즈 정답 보내기

퀴즈 정답을 남겨주세요. 정답자 20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구독 후기 보내기

웹진에 방문해서 <어린이 나라사랑>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50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구독 신청하기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께 <어린이 나라사랑> 다음 호를 보내드립니다. (한정 수량 초과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START

## 순국선열은 무슨 뜻일까요?

베어강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항거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뜻합니다.

## 돌발 OX

말하는 나라를 위하여 무력으로 항거한 사람이지?

## 뒤로 두 칸



박순홍 하사

## 박순홍 하사 6.25 진중일기

박순홍 하사께서는 진중일기에는 당시 전쟁 상황과 참전용사로서 마음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 돌발 OX

6.25 전쟁 LIN 참전국 중 전투지원국은 16개국이다.

## 한번 더 던지기



## DMZ 박물관

DMZ 박물관에서는 6.25 전쟁 전후의 모습뿐 아니라 독특한 생태 환경도 볼 수 있어요

## 비밀 암호

독립운동에서 비밀스럽게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비밀암호로 어린이 나라처럼 소감을 적어보아요!

# FINISH

## 돌발 퀴즈!

6.25 전쟁 때 만들어진 부산의 대표 음식은?

## 이곳은 어디일까요?



### 대환이 생겼어!

정말이! 정말이! 정말서 정말! 믿고 두루뭉개고요! 하는 노래 가도 할 때 잠시 두 개를 같이 하면 믿고 믿어볼 때 대환이 생겼어! 대환이 생겼어! 신सान이름 하고 바다가 왔어! 대환이 생겼어! 대환이 생겼어! 대환이 생겼어!

## '대환이 생겼다' 한 소설 둘러보기



김재원 역사학자

## 출퇴 기자단

김재원 역사학자님께 우리 역사에 관한 궁금증을 물어보았어요!

## 앞으로 한 칸



박인이 박은 서연

## 종군기자 테이스트 더글라스 던컨

던컨은 전쟁이 만든 고통과 이들을 구해내지 않고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 이곳은 어디일까요?



# 증강현실(AR) 주사위 게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여 나라사랑 게임을 설치한 후 화면에 주사위 게임판을 띄워보세요. 주사위 게임을 증강현실(AR)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AR



iOS용AR

## 앞으로 한 칸

## 백마고지 기념관

고지를 놓고 전쟁전을 벌인 백마고지 전투에서 희생된 국군 미군 등 전사자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된 곳이에요